

나주, 쓰레기 봉투 가격 7월부터 오른다

20ℓ 기준 장당 '250원→380원' 130원 인상

나주시가 생활 쓰레기 처리 비용 현실화를 위해 18년 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오는 7월부터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20리터(ℓ) 기준 가격을 한 장당 250원에서 38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여러 워킹 서민 생활과 물가 상승률 억제 등을 이유로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18년간 동결해 왔으나 최근 계속해서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고 처리비용도 상승해 쓰레기 줄이기 및 처리비용을 현실화를 위한 불가피한 인상이란 시는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나주시의 생활 쓰레기 처리비용 주민부담률은 '22년 말 기준 10%로 전국 지자체 평균 30%에 크게 못 미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생활 쓰레기 수거와 매립장 운영

에 있어 막대한 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시(市) 지역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과 비교했을 경우 4개 시 평균 가격이 733.6원인데 반해 나주는 52%수준인 381.6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상이면 평균 가격은 561.6원으로 오른다.

나주시는 최근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통해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행정절차와 의회 의결, 시민 홍보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인상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장당 판매가격은 5ℓ는 80원에서 110원, 10ℓ는 130원에서 200원, 20ℓ는 250원에서 380원, 30ℓ는 360원에서 510원, 50ℓ는 570원에서 900원, 75ℓ는 900원에서 1270원이다. /나주=허필수 기자

'꽃 피는 봄' 장성, 체험 가득한 다양한 축제 풍성

20~21일 진원면 산동리 유채꽃축제 개최... 말 타고 유채꽃 체험 '기대'

내달 24~26일 길동무 꽃길축제... 황룡정원 잔디광장서 '뮤직 페스티벌'

장성군이 화사한 봄꽃과 음악, 개성 넘치는 체험으로 가득한 축제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오는 20~21일 진원면 산동리 일대에선 '유채꽃축제'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마을 입구부터 이어지는 1.2km 구간 유채꽃밭은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명소다. 승마 체험, 유채꽃 체험부스 등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든 콘텐츠들도 선보인다.

즐길거리도 많다. 난타 공연, 마술

쇼, 풍선아트, 풍마, 현장 노래방 등 방문객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들로 축제의 흥겨움을 더한다.

한 달여 뒤인 5월 24~26일에는 대표 봄축제인 '길동무 꽃길축제'가 막을 연다. 올해는 옛 공설운동장 부지를 '황룡정원 잔디광장'으로 새롭게 조성한 점이 눈에 띈다.

물빛공연장 음악분수 앞에 무대를 만들고, 잔디광장에는 부채춤 모양으로 '피크닉 관람석'을 설치하고 있다. 잔디밭에 여유롭게 앉아 공연과

황룡강 봄 풍경을 감상하기 좋을 듯하다. '피크닉(소풍)'과 축제를 결합한 새로운 시도다.

코스모스, 꽃양귀비, 해바라기 등 알록달록한 봄꽃도 풍성하게 피어난다. 황룡강변 3.2km 구간이 화사한 봄꽃으로 물들어 장관을 연출한다.

지난해 황룡강 가을꽃축제에서 큰 찬사를 받았던 '야영(캠핑) + 소풍(피크닉)' 콘셉트도 이어간다. 올해는 어디서든 자유롭게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책을 비치하는 '북 캠프'를 계획 중이다.

가장 이목을 끄는 변화는 '뮤직 페스티벌'이다.

주말인 25일 오후부터 밤까지 다양한 음악인들의 연주가 귀를 즐겁게 한다. 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참여하는 '음악축제' 콘셉트를 길동무 꽃길축제의 핵심 브랜드로 육성할 방침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아름다운 봄꽃과 매력적인 즐길거리가 가득하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며 "올해 처음 열리는 진원면 산동리 유채꽃축제와 새로운 변화에 나선 길동무 꽃길축제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심재식 기자

장흥,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자 모집

오는 15~29일 접수

장흥군이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청년들이 지역 사회 활동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의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다.

신청 자격은 19세 이상부터 49세 이하인 청년 5인 이상을 구성원으로 하는 팀, 법인·단체이다.

이 가운데 장흥군에 주민등록 주소소를 둔 청년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군은 구비서류, 신청 자격, 내용의 적격성 심사를 통해 8개 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동일 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거나, 단순 친목 또는 영리 목적의 모임, 단체의 운영비 및 자산 취득을 위한 사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며, 팀당 활동 수행비로 600만 원이 지원된다.

/장흥=임민기 기자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 다양한 이색 공간 '눈길'

오는 19일 개막... 화순미림·벨리곰·물멍존·몽환의숲·춘양 봄별정원 등 마련

깊어 가는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싶다면 오는 19일부터 막을 올리는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장으로 오는 것을 추천한다.

이번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는 작년 봄, 가을에 이어 고인돌 유적지에서 개최되는 3번째 축제며, '화순으로 봄소풍 가자!'라는 주제로 가볍게 떠나는 피크닉을 기본 컨셉으로 잡았다.

특히, 지난해 호평을 받았던 화순미림에는 색다른 유채꽃을 배경으로 핑크빛 초대형 벨리곰 조형물을 설치하여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핫 포토스팟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물멍존에는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며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빈백, 피크닉 매트 등 완비하였고, 물멍



존 끝 어덕에 위치한 몽환의 숲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자연경관과 봄꽃 나뭇배를 비롯한 아름다운 포토 조형물의 콜라보로 관광객에게 이색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보검재를 넘어 춘양 방면으로 내려가면 넓게 펼쳐진 잔디광장에 봄별정원이 나타난다.

젊은 감각을 활용한 팝업 스토어 형식의 야외 카페를 중심으로 휴식존과 포토존을 조성하여 축제장을 찾은 가족, 연인들에게 특별한 안식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화순=주용현 기자

화순, 우리 쌀 소비 촉진반 교육생 모집

화순군은 8일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쌀 소비 저변확대를 위해 우리 쌀 소비 촉진반을 주도할 수 있는 농업인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쌀 소비 촉진반 교육 수강생 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쌀 소비 촉진반은 4월 22일 개강하여 5월 8일까지 총 5회 3시간씩 진행되며, 교육 내용은 쌀누룩 발효의 원리와 발효 미생물에 관한 이론, 일상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쌀누룩, 쌀 음료, 현미 요구르트, 쌀 소금, 쌀 젤 등의 실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우리 쌀의 다양한 활용 방법 확산과 소비 촉진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우리 쌀의 소중함을 알고 올바른 쌀 소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군 문화관광
http://www.hwasun.go.kr/culture
문의전화 061) 379-3575-7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
선사시대로 떠나는 봄소풍

2024. 4. 19.(금) - 4. 28.(일)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원

담양, 전남도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공모 선정

사업비 20억 확보... 담양호 국민관광지, 화장실 리모델링·주차장 개선 등

담양호 국민관광지가 전라남도가 공모한 '2024년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에 선정돼 낡은 기존 시설의 정비와 개선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2024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은 전남도 내 관광지 27개소, 관광특구 2개소 총 29개소 중 3곳을 선정해 노후 관광시설과 프로그램을 보완·재생하는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담양호 국민관광지(추월산지구)'는 1977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47년이 지난 노후 관광지. 매년 추월산과 담양호 등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약 4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군은 이번 선정을 통해 오래된 화장실과 주차장을 개·보수하고, 야간 불거리를 추가해 추월산 지구에 건

립 예정인 국제명상센터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담양의 대표 관광명소인 담양호 관광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을 비롯한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힐링하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강성국 기자

'영광 찰보리 어울터' 개관식 개최

찰보리 융복합산업 랜드마크 역할 기대



영광군은 지난 5일 군남면 포천리 지내들 일원에서 영광 찰보리 융복합산업의 랜드마크 '영광 찰보리 어울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관식은 강종만 영광군수,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군의회 의원, 정진삼 영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장을 비롯하여 기관 사회단체장, 농업인단체 및 군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축사, 데이 프러티브,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총사업비 35억 원이 투입된 '영광 찰보리 어울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군남면 포천리 지내들 일원에 건축면적 718.5㎡, 연면적 864.1㎡ 지상 2층으로 신축됐다.

1층은 찰보리 활용 주민교육체험실과 농·특산물 홍보실, 2층은 회의실 등의 주민복지공간을 갖추었다.

이번에 개관한 '영광 찰보리 어울터'는 찰보리 산업의 자생적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체와 지역공동체 간 연계 및 네트워킹을 통해 영광 찰보리 융복합산업의 대표 건물로 공익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영광 찰보리 어울터 준공을 위해 노력을 해 주신 신활력플러스추진단 등 관계자들과 농업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전국 유일 보리산업특구인 영광군의 찰보리산업을 내실 있게 다져 나갈 수 있도록 공직자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광=서준명 기자

함평, 한빛원전 1·2호기 계속운전 관련 주민 공람

함평군이 한빛원전 1·2호기의 계속 운전과 관련한 주민 공람을 지난달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빛원전 1호기의 운영허가 기간은 내년 12월 22일, 2호기는 2026년 9월 11일 각각 만료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은 2027년 6월경 한빛1.2호기의 10년 연장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원전 계속 운전으로 인한 일반 주민 피폭선량 등 주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방사선 환경에 대한 안전성 입증 문서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초안을 마련했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함평군청 안전관리과, 순ભ면사무소, 신광면사무소, 해보면사무소, 월야면사무소 및 한국수력원자력(주)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수렴 대상 주민은 순ભ, 신광, 해보, 월야 4개면 거주 주민이며, 방사선 환경영향 및 그 감소 방안 등에 관한 주민 의견이 있으면 주민 의견제출서 양식에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함평=김용희 기자